

## 관세청, 한화이글스 홈경기서 '마약·짜통 밀반입 차단' 캠페인 실시

- 체험형 홍보 부스, 퀴즈 이벤트 등 국민 참여형 소통 행보 강화
- 밀수신고 전화번호 '125' 알리고, 지역 아동 초청하여 사회적 책임 실천

관세청은 4월 29일(화)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경기장 장외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밀수신고 전화번호 125를 알리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 △125 빙고 게임(과녁판에서 밀수신고 번호에 해당하는 1, 2, 5를 공으로 맞추는 게임), △마약·짜통 OUT 포토부스(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공유하여 불법물품 근절 문화 확산) 등

경기 중에는 전광판을 통해 기관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관세행정 상식을 맞히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들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의 위험성과 밀수신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며 관세청의 역할과 사회 안전 기여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평소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대전지역 보육원 아동들을 야구 경기에 초청하는 문화체험 행사도 병행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현장 소통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관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현석 (042-481-7620)
		담당자	사무관	임현웅 (042-481-7621)